

암·성인병 등의 의학적 연구 위한 센터 건립

安弼濬보사부장관, 신년사서 밝혀

安弼濬 보건사회부장관이 壬申年 새해를 맞이해 新年辭를 발표했다.

安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에는 콜레라 확산방지, 129응급의료체계 가동, 영세민 생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요원 확대 배치, 효율적 의료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지역의 보 누적적자 지원 등의 다양한 사업을 전개, 큰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또한 安장관은, 『올해에는 증대되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보사시책에 반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올해의 중점사업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전염병 예방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각종 질병관리사업을 추진할 것이며, 암에 대한 전문적 치료 및 암·성인병에 대한 활발한 의학적 연구를 위해 국립 암센터 건립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올해에는 1천억원을 용자·지원하여 7천개의 병상을 증설함으로써 병상 부족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셋째, 저소득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립자금 대여와 자녀학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노인과 장애인들이

불우이웃돕기 성금 전달

健協 崔振學 회장, KBS에



최진학 회장

건강관리협회 崔振學 회장은 지난 1월7일 불우이웃돕기 성금 1백6십여만원을 KBS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건협 임직원들이 연말연시를 맞아 불우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한 것이다.

간병·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在家복지봉사센터 설치·운영 사업을 새롭게 실시할 계획이다.

네째, 국민연금 적용 대상을 5~9인 사업장으로까지 확대하고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노령수당을 지급할 것이다.

한편 安장관은, 『새해의 이 모든 사업은 보건의료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자발적인 참여없이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합심·협력하여 보사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선진 복지사회 실현에 이바지하자』고 당부했다.